

7월의 안테나

노영환
(본지 편집국장)

다시 떨어지는 계란값과 올라가는 사료값

계란 수출에 의한 심리적 영향 등으로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계란가격이 한달만에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대란을 기준으로 6월초에 46원 하던것이 20日 후인 6월 말에는 7원이나 하락한 39원에도 물량이 채화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료값 인상시기가 불황기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사료값 인상시기가 계란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맞추어진 것은 양계가들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양계장은 계란값과 사료값 맞추기에 바쁘게 되었다.

6월 초의 사료가격 인상요인이 대부분 강류품귀에 의한 품질향상에 의한 것과 금리부담 등으로 알고 있는데 사료협회에서도 수수 타피오카 GSP 등 원료 수입을 다변화해서 배합사료의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어 기대해볼만 하다.

양계사료의 주종은 역시 옥수수인데 한때는 톤당 200 \$이 넘는 것을 썼으나 지난 25일 구매분은 톤당 166 \$로 구입하여 20%이상 싸게 구입하였고 물량도 10월 15일 까지의 사용량을 구매하여 수급과 가격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옥수수를 안정기준가격(195 \$) 보다 싸게 구입하여도 차액은 사료안정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양축가에게는 당장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료값이 인상되면 자연 양축가들은 안정기준가격을 다시 한번 쳐다 보지 않을 수 없다.

축협이 옥수수 구매에 자금이 필요하고(약 100억) 또 해마다의 국산옥수수 사용에 따른 차액 보전이 금년에는 옥수수 신품종 개

량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보전액만도 6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립된 기금을 고려하면 기금 적립율을 조금 낮춰도 이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쇠고기 값이 2,800원에 묶여 있고 닭고기 등 양계산물 가격이 압박을 받아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양계산업은 사료값을 인하여서 생산비를 낮추지 않고는 활로를 타개할 길이 없으니 사료 안정기준 가격의 재조정이 속히 이루어져 다시 양계 농가에 의욕과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축산업에 대한 세계면에서의 지원 계속되어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적인 세법 개정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세법은 매년 예산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소폭적으로 개정이 되어왔지만 대부분의 조세 감면기간이 금년말 사업분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다.

신문 보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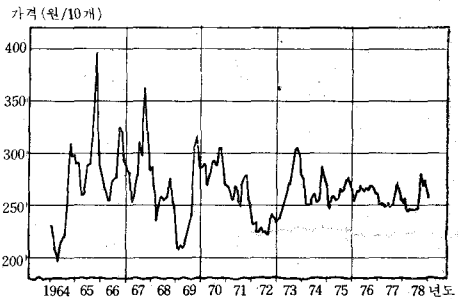
이번 세법 개정에서 정부의 구상도 가능한 한 감면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은 그간 여러 차례 설명된 바와 같다.

그러나 축산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년 ~ 2년반을 주기로 경기가 변동되니 현재의 감면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감면금액은 반드시 법대로 적립하도록 하여 불황때나 또는 재투자에 사용토록 하여 축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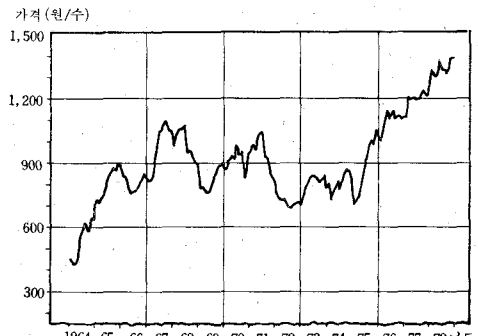
축산은 농업중에서도 특수한 만큼 1년을 단위로 사업을 결산하여 과세하는 현재도 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세정 당국에서도 이해하여 주어야 되겠다.

계란 농가판매가격 변동



* 기준년도 1975=100
자료: 농협조사원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

닭 농가판매가격 변동



* 기준년도 1975=100
자료: 농협조사원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